

2022. 5월 3주 언론보도 스크랩

[소방정책] 봄철 산악사고대비 소방력전진배치

江原日報

2022년 05월 16일
04면 (사회)

도소방본부 봄철 산악사고 대응태세 강화

강원도소방본부는 봄철 산악사고를 대비해 16일부터 29일까지 설악산 주변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한다.

외설악, 내설악, 남설악 등에 3개 조 16명으로 구성된 전문 구조팀을 배치하며 도내 18개 소방서에서도 봄철 산악사고 발생에 따른 산악구조 발생 대비 대응태세 강화에 돌입한다. 등산로 주변 간이구급함 등 안전시설물 점검 완료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산악구조 공조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도내 산악사고는 4,475건이 발생해 사망 61명, 부상 2,272명 등 2,3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낙상·추락이 1,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2~4시(903건)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선 음주산행이나 단독산행은 삼가야 하며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등산 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박순걸 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안전한 산행을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순찬기자

(11.6+9.1)cm

매일경제

2022년 05월 15일
(사회)

봄철 산악사고 '깁충'...설악산에 전문구조팀 전진 배치



산악구조

강원도소방본부는 봄철 산악사고에 대비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전문구조대원 16명을 3개 팀으로 나누어 외설악·내설악·남설악 주변에 전진 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등산로 주변 간이 구급함 등 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산악구조 공조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강원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산악사고는 4천475건이 발생해 61명이 숨지고 2천272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은 낙상·추락이 1천172건(26%)으로, 발생 시간대는 하산에 접어드는 오후 2~4시가 903건(20%)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소방 관계자는 "안전한 산행을 위해 반드시 체력에 맞는 등산을 하고, 산행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며 "음주 산행은 삼가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설악산에 산악구조대 배치...탐방로 개방 대응



KBS뉴스 강원 누적 확진 50만 명 넘어...3명 중 1명 감염

강원도소방본부는 이달 16일부터 이달(5월) 29일까지 설악산 일대에 산악구조대 등 인력 16명을 배치합니다.

이들은 등산로 주변 안전시설물 점검과 순찰 등을 담당합니다.

이번 조치는 산불 예방을 위해 출입이 통제됐던 강원도 내 국립공원 탐방로가 다시 개방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정상빈 normalbean@kbs.co.kr

東亞日報

2022년 05월 13일
(사회)

축구공 맞고 의식 잃은 50대...응급처치로 살린 구급대원



경기 중 쓰러진 환자 이송하는 모습.(강원도소방본부 제공)© 뉴스1

강원 춘천에서 축구경기 중 공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은 50대 A씨가 119구급대원의 심폐 소생술로 생명을 되찾았다.

13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19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거두 농공단지내 축구장에서 경기 도중 가슴에 공을 맞은 뒤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소방서 대룡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당시에는 주변 사람들이 기도를 확보하는 등 응급처치를 시도하고 있었으나, A씨의 맥박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곧장 구급대원들은 CPR(가슴압박)과 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했으나, 맥박이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A씨가 병원도착 전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양수진 구급대원은 "한분의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 소방공무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며 "환자분의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소방정책] 축구경기 중 쓰러진 시민살려

매일경제

2022년 05월 13일
(사회)

축구공 맞고 심장 멎은 50대...거듭된 응급처치로 소생

춘천 대룡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 심폐소생술로 회복



축구공 맞고 쓰러진 심정지 환자 이송
축구 경기 중 가슴에 공을 맞고 쓰러진 50대 심정지 환자가 119구급대원들의 거듭된 심폐소생술 덕에 목숨을 건졌다.

13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9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거두농공단지 내 축구장에서 A(53)씨가 가슴에 공을 맞은 뒤 쓰러졌다.

주변인들이 가슴압박을 하고 기도를 확보했으나 춘천소방서 대룡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의식과 맥박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자동 심장충격기(AED)를 사용했음에도 맥박이 돌아오지 않았으나 거듭된 시도 끝에 병원 도착 전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했다.

양수진 구급대원은 "소중한 생명을 구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환자분의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수진(왼쪽부터)·박진서·이종훈 구급대원
[연합뉴스]

[소방정책] 축구경기 중 쓰러진 시민살려

강원도민일보

2022년 05월 13일
(사회)

축구공 맞고 심장 멎은 50대, 심폐소생술로 목숨 구해

노현아



▲ 사고 당시 CCTV화면 캡처[사진 제공=강원도소방본부]

축구 경기를 하다 가슴에 공을 맞고 쓰러진 50대 환자가 119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건졌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A(53)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19분쯤 춘천시 동내면 거두농공단지 내 축구장에서 가슴에 공을 맞은 후 쓰러졌다.

춘천소방서 대룡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의식과 맥박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 (사진 왼쪽부터)양수진·박진서·이종훈 구급대원[사진 제공=강원도소방본부]

자동 심장충격기(AED) 사용에도 맥박이 돌아오지 않던 A씨는 119구급대원의 거듭된 심폐소생술로 병원 도착 전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했다.

양수진 구급대원은 “소중한 생명을 구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환자분의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now7310@kado.net

세계일보

2022년 05월 16일
(경제)

하이트진로, '2022 감사의 간식차' 운영 시작

하이트진로가 소방공무원을 응원하는 착한 행보를 올해도 이어간다.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전국 소방서를 직접 찾아가는 '2022 감사의 간식차' 행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1일 영월, 삼척소방서에서 첫 행사를 진행했다. 13일 강릉소방서에서는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 강원소방본부 윤상기 본부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방관들에 푸짐한 간식과 선물을 직접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원소방본부를 시작으로 올해는 10월 14일까지 전국의 소방서를 순차적으로 방문, 간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강원, 부산, 울산, 광주, 충남, 세종, 경기소방본부 산하 30개 소방서를 찾아갈 예정이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05월 19일
22면 (인물)

2022년 모범소방관 서경우·김복수·정재필 선발

전국 78명 중 도내 3명 선정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소방청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에스-오일이 선발하는 모범소방관으로 강원도내 소방관 3명이 선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선발된 모범소방관은 전국 78명으로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소방본부서경우 소방위, 태백소방서 소방경 김복수, 속초소방서 소방경 정재필 총 3명이 이름을 올렸다.

모범소방관으로 선발된 3명은 이날 제주신화월드 랜딩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과 함께 수상자 부부



서경우

김복수

정재필

에게 2박 3일 제주문화체험 휴캠프를 부상으로 수여했다.

수상자속초소방서 정재필소방경은 “소방공무원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수상해 기쁘다”며 “국민에게 더 좋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훈

(11.4*8.5)cm

江原日報

2022년 05월 19일
21면 (인물)

김복수·정재필·서경우 '모범소방관' 선정

도내 3명 등 전국 78명 선정

강원도 소방관 3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한 모범소방관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김복수 태백소방서 소방경, 정재필 속초소방서 소방경, 서경우 도소방본부 소방위 등 3명이 소방청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에쓰오일이 주최하는 '제9회



◇김복수



◇정재필



◇서경우

모범소방관 부부 휴캠프'에서 모범소방관으로 선정됐다.

전국에서 총 78명이 선발됐으며 18일 제주 신화월드호텔 랜딩관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모범소방관들에게는 한

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과 함께 수상자 부부를 위한 2박3일 제주 문화체험 휴캠프가 수여됐다.

정재필 소방경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 좋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권순찬기자

(15.0*8.2)cm

매일경제

2022년 05월 17일
(정치)

강원소방, 소방시설 감리 결과 점검...위반사항 14건 적발



강원소방, 소방시설 감리 결과 점검

강원도소방본부는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 불시점검한 결과 불량사항 14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소방은 이 중 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 제출한 4건은 형사입건했다.

소방기술자 미배치 시공 등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화재 안전기준 시공 위반 등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또는 조치명령 처분을 내렸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방정책] 소방시설 감리 완공 대상 불시점검

G1방송

2022년 05월 18일
(강원)

강원소방, 소방시설 감리결과 점검..14건 적발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강원도소방본부가 감리 완공 시설물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벌인 결과 14건을 적발했습니다.

강원소방은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광역 조사반 2개 조를 투입해 소방시설 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했는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점검 결과 감리보고서를 거짓 제출한 4건을 형사 입건하고, 소방기술자 미배치 시공 등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